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80-012 서울서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빌딩 3층
 P.O. Box 118, OIS&ID building #32, Chungjeongro 2 ga., Seodaemun Gu, Seoul, Korea.
 Tel. (82-2)365-4016, 392-5252 Fax. (82-2)365-4017
 Internet: http://witness.peacenet.or.kr E-mail: jdh@peacenet.or.kr

문서번호 : 2000 - 158호

2000. 11. 2

수신 :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참조 : 바우넷 제팬

제목 :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시 남북공동기소를 위한 시나리오의 선

1. 보내주신 기소장 잘 받았습니다. 요즈음 매우 바쁘시지요? 지난 10월 25일 (해이그)에서 판사단과 국제검사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측에서는 윤정옥 선생, 양현아 선생, 조시현 선생 세 사람이 참석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판사단은 6명으로 확정되었고, 모두가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지난 9월 대만에서 합의한 대로, 기소장은 북측에서 보내준 것을 남측이 정리해서 공동기소장을 만들어서 11월 6일까지 판사단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전체가 마무리 되는 대로 북측에 보내겠습니다.

3. 12월 8일 남북공동기소를 위해 일차적으로 대만에서 법정시나리오를 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남측에서 보다 자세한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법정 시나리오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북공동 기소 시나리오는 2000년법정에 참석할 1000여명의 청증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 보다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검사 중에서 전체 진행자 1명, 각 주재별로 남북 검사단 1명 혹은 2명을 배치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됨으로 한사람이 전체를 진행하는 것이 지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각 주재별 다양한 사람을 배정했습니다.
- 각 주재별로 남북이 공동작업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요청을 했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남측에서는 11월 17일 동경에서 모임을 일본측과 한번 더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법정 리허설을 위해서 검사단들과 할머니들이 미리 가실 예정입니다.
- 자료교환 등 현실 가능한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법정 시나리오는 초안입니다.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검토하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까지 의견서를 바우넷 제팬을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보내주신 기소장과 관련된 자료 보충의 건입니다.

- 1) 방진위안소와 관련하여: 위안소 개설시기, 주둔부대, 관련 증인자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 관련 비디오 자료(첨부자료)
- 2) 조선인 '위안부' 총수에 대한 추계(첨부자료)
- 3) 박영심 할머니 관련 자료
- 4) 일제 강점기 잔학상을 잘 드러내는 비디오 자료(첨부자료, 시나리오 자료)
- 5) 할머니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사진자료(첨부자료, 시나리오 자료)
- 6) 피해자 명단: 고향, 생년월일, 연행지, 연행시기, 어떻게 연행되었는가(첨부자료)

6. 남측의 기소장 준비일정입니다. 참조하시고, 준비되는 대로, 한글이 있으면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록부분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으시는대로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소장의 틀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소장의 틀은 너무 피고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증언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필의 형식을 조금 바꾸어서 피해자 사실이 잘 드러나도록 할 생각입니다]

11월 1일(수) 기소장 1차 점검회의; 집필책임 분담, 북측 기소장 검토, 제작성의 방향

11월 6일(월) 기소장 2차 점검회의: 각 부분 집필 확인과 번역자와의 만남, 향후 일정 검토, 각 나라 기소장 cross check

11월 6일-9일(목): 기소장 본문과 부록의 검토, 번역 초안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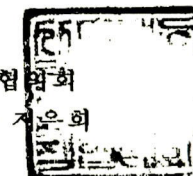
11월 10일, 11일, 12일(일): 기소장 3차 점검회의, 기소장 본문과 부록의 최종검토와 번역 완성, proof reader확보

11월 13일(월): 기소장 최종본 국제실행위 송부(판사단, 북측)

7. 지난 대만회의에서 만난 YTN의 한원상 기자는 위안부 관련 특집을 11월 초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남북관련 보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도하자는 입장을 정대협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만회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수준에서(정남영, 장완익), 천황처벌을 삭제한 수준에서 개인의 형사책임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일반적 수준에서 멘트가 나간 것 같습니다.

8. 역사적인 남북공동기소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한국어 판이라도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성 개요

- 우리의 공소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한편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단 중 1명에게 프리젠티(진행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 도입, 강제 연행, 위안소 범죄, 귀국 이후, 법 적용 등 각 부문 별로 검사가 등장하여 공소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도입 부문과 법 적용 부문은 북한측이 맡도록 한다.
(진행: 박원순(남), 도입: 북의 검사, 강제 연행: 하종문(남), 위안소 범죄: 정진성(남), 북의 검사, 귀국 이후: 양현아, 김정숙(남), 법 적용: 북의 검사, 조시현(남))
- 법정을 하나의 무대로 상정하고, 동영상 및 슬라이드, 파워 포인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목율을 높이하고자 한다.
- 특히 섹터와 섹터를 구분하는 지점에서는 조명 효과(F.O, F.I)를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걸개 그림 등의 간단한 무대 소품을 이용하여 청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 2 -

2000년 국제법정 남북공동 기소 시나리오 假 구성안

2000. 10.

초안: (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구성안

	형식	내용	비고
도입	- 무대의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영상물 상영 (“강덕경” 할머니의 생전 삶과 그림들이 교차 그리고 “강덕경” 할머니의 죽음까지...) - 무대에 불이 켜지면, 프리젠티 등장 프리젠티가 “강덕경” 할머니의 죽음이 가지는 의 미를 통해 우리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설명 - 이어 검사가 등장하여 일제 강점기와 그 아래서 의 우리 ‘군 위안부’ 문제 특수성을 영상 자료 및 파워 포인트를 통해 설명 (무대 F.O)	“강덕경 할머니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 겨주고 있음. 이어 우리의 공소 배경과 필요성, 당위성, 순서, 법 적용 개괄성 등을 간단하게 언급” “강점의 역사 가부장적 질서를 교묘히 이용 공창제 등...”	- 북한 측 검사 등장 - 북측 보유 해당 동 영상자료 요망

	형식	내용	비고
강제 연행	- 영상물 상영 (기존 영상물 중 강제 연행 에피소드 부분을 발 췌해 노래와 함께 재구성) - 이어 다시 불이 켜지면, 프리젠티가 강제 연행 수법에 대해 설명 - 검사가 등장하여 강제 연행 부문 설명 사이사이 할머니들의 비디오 증언 - 파워 포인트를 이용한 할머니들의 이동 경로 다 이어그램(김복동, 박영심 할머니의 예) (무대 F.O)	“그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누이 였으며, 언니였으며, 동생이었을 뿐이다. 이런 순진한 여인들에게 일본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 “군인 또는 공무원의 지위라는 사실상 국가기관으 로서 사기, 납치, 인신매매 등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 동원을 자행” “군복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면 된다고 해서...” “난데없이 머리채를 쥐어 그냥 차로 끌고 갔다...” “이웃집 아줌마가 팔이 넘겼다...” “조선 전 지역에서 수만 명 이상 추산되는 ‘군 위 안부’가 연행 특히 11-13세까지의 어린 소녀도 연행”	북측의 할머니 관련 비디오 자료 - 박영심 할머니 이동 경로 자료 요망

	형식	내용	비고
귀국 이후 (일본의 책임회피)	- 스크린에 일본 관광객들에 대한 인터뷰 중티 - 쥬를 통해 현 일본인들의 '군 위안부'에 대 한 무시 지적 - 이어 불이 켜지면, 프리젠티 등장 - 검사가 등장하여 일본군성노예 범죄의 부인, 은 배, 왜곡 사례 설명 - 일본 고위층들의 망언 중티쥬 - 검사가 일본 천황의 책임을 지적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북측 중태위 등 활동 상을 통해 우리의 '군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 소개 - 무대 (I.O)	"잘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었나?" "어처럼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잊고 있다..." "국민 기금 등은 '군 위안부' 문제를 교묘히 피해가려는 술수일 뿐" "국회의원 언행 오쿠노 회장, 위안부는 상행위, 강제 면행 없었다 등등..." "천황에게 책임이 있다."	- 북한 측 해결 노력 자료 요임

	형식	내용	비고
법 적용	- 불이 켜지면, 등장하는 검사단 중 2명 (이제까지의 분위기와 다르게 논리적으로 법 적용) - 무대 (F.O)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	- 북측 검사 등장 - 남측 검사 등장
에필로그	- 불이 켜지면, 할머니들과 전 검사단 등장 - 프리젠티가 '드레퀴스 사건'의 에밀줄리 발언을 이용하여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사죄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서 점을 강조 - 이어 수요 집회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우리의 노력과 강령경찰머니의 환한 웃음에 서...	"전상규명 시죄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념관 설치 등..." "내가 그대들을 우고했다면 나를 고소하라" "언젠가 일본은 일본의 명예를 구하는 데 도와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다..." "일본이 진정 사죄할 때까지 우리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될 것..."	- 모두 등장